

IMF시대 보일러 판매전략

우리만의 경쟁력을 키우자

보일러 하면 으레 겨울을 떠올리지만 성수기는 봄과 가을이다.

봄철인 4~5월에는 주택이나 건물의 신·증축으로 신규 수요가 많은 반면

가을인 9~11월에는 겨울을 앞두고 노후 보일러를 새 보일러로 바꾸는 교체 수요가 많다.

을 해

보일러 시장은 IMF한파 영향으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과

이사수요 격감, 일반 가계의 소비 위축, 유가 상승 등으로 침체가 예상된다.

제조업체들은 소위 'IMF형 제품' 들을 대거 선보이며 고객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연료절약형 개발 불황 극복

■ 보일러시장 현황

국내 보일러 시장은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최근에는 가스보일러의 약진, 기름보일러의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연탄보일러를 대체하며 급성장했던 기름보일러가 점차 가스보일러에 밀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기름보일러는 96년을 정점으로 성장률이 해마다 5%씩 감소, 91년 100만대 판매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 처음 95만대로 떨어졌다.

귀뚜라미보일러와 경동보일러가 기름보일러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

름보일러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됨에 따라 대우전자 등 대기업들의 참여가 잇따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름보일러 업체들이 영업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가스보일러시장에 대거 진출하는 등 업계내 활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름보일러의 성장이 둔화됐으나 도시가스(LNG)배관망이 보급되지 않은 중소도시나 농촌에서는 여전히 기름보일러 수요가 많아 2000년까지 전체 보일러 시장의 40%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보일러시장에서는 린나이코리아가 지난해 26만대 판매로 전년동기보다 38% 성장하며 5년 연속 선두자리를 지킨 가운데 귀뚜라미와 경동도 각각 20만대, 12만대를 판매해 40%, 3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 보일러시장 전망

제조업체들은 시장 확대보다는 기존 매출 수준을 지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름보일러 업체는 최악의 경우 기름보일러가 20%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연탄보일러가 재등장하고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과 함께 LPG 체적거래제가 구축되면 수요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름보일러 업체들은 가스보일러와의 정면 승부를 피해 개발이 덜 된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잠재 시장을 개척하고 특수작물용, 원예용, 건조용 등 특수 제품을 개발해 수요 확대의 돌파구를 모색할 방침이다.

또 최근에는 부품가격이 최고 40%이상 올라 업체의 원가부담이 가중돼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그러나 9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가스보일러의 교체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지방의 신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해 시장 전망을 다소 밝게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활발한 마케팅과 함께 24시간 구입 신청 접수체제를 유지하는 등 서비스 경쟁에 주력하고 있다.

■ 수출로 불황을 타개한다

업체들은 인원 감축과 대리점 개편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며 불황 타개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또 내수시장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활발히 수출시장을 개척하며 수출 지역도 중국 동남아 러시아 중심에서 유럽, 아시아, 남미 등으로 다변화해 나가고 있다.

연료별 난방 요금

구 분		유류 보일러		가스보일러	전기보일러
		등유	경유	LNG	심야전력
에너지 가격 (3월말)		591원/ l	590원/ l	421.16원/Nm ³	23.20원/kWH
26평 (연간)	에너지 소요량	2,287 l	2,281 l	2,051Nm ³	33,000kWH
	에너지 비용	1,352천원	1,346천원	864천원	766천원
34평 (연간)	에너지 소요량	2,990 l	2,982 l	2,681Nm ³	45,000kWH
	에너지 비용	1,767천원	1,759천원	1,129천원	1,044천원

※ 에너지소요량 및 에너지비용은 가동일수 150일 기준 (하루 10시간 가동)

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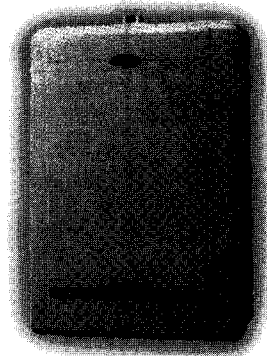
스테인레스 OK보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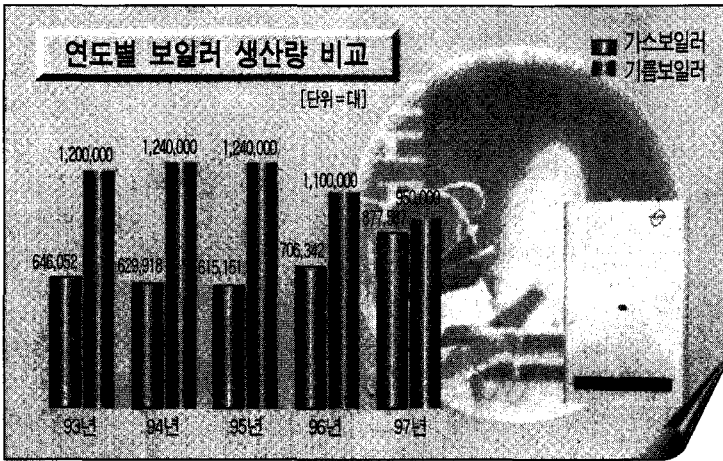
기존 철제품의 단점을 보완, 내구성이 강하고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레스를 주소재로 제조했다. 용접부위의 균열과 진동, 소음방지를 위해 평평한 스테인레스판에 입형무늬를 넣어 특수 가공한 엠보싱관체로 만든 게 특징.

최첨단 전자식 프린트 패널에 의해 모든 기능을 디지털화하여 작동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사용이 간편하다.

4년 연속 우수 디자인(GD)마크를 수상할 만큼 미관이 뛰어나고 몸체도 가벼워 운반이 용이하다.





이와 함께 연료 절약형 제품개발과 대(對)고객 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 에너지 절약형 보일러 등장

보일러 시장이 침체되자 업체들은 에너지 절약

형 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기름이나 가스 대신 화목이나 폐지, 석탄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IMF형 다목적 보일러'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제품은 이미 설치된 가스, 기름보일러와 자동으로 기능이 호환이 되도록 설계됐으며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간단해 농어촌 지역이나 비닐하우스, 양식장 등의 난방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와 함께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 햇빛을 이용해 온수를 공급하는 태양열 온수기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이 제품은 설치 비용은 많이 들지만 추가비용이 필요없어 고유가(高油價)시대에 적합한 제품으로

귀뚜라미 보일러

소비자 밀착 마케팅 강화

귀뚜라미보일러(대표 최은한·崔銀漢)는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활발한 마케팅을 통해 업계 선두주자로서 위촉된 보일러 시장에 활력을 주고 경쟁력 있는 가격과 품질로 비전을 제시할 방침이다.

IMF한파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료 절약형 다목적 보일러와 냉난방보일러를 출시해 고객이 요구하는 새로운 욕구에 부응하기로 했다.

또 탄탄한 유통망을 바탕으로 소비자 밀착 영업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전국 각 대리점과 본사 영업팀이 합심해 교체수요와 신규 수요 창출에 노력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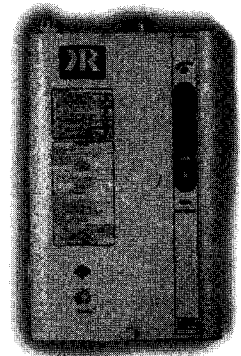
아울러 최근 환율 급등에 따라 외국시장 판로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지역에 대한 수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순동가스보일러

귀뚜라미의 순동가스보일러는 우리나라 온돌 구조에 알맞은 저탕식 구조로 순간식 보일러보다 관수용량이 20~30배 많아 종일 더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더운 물이 나오다 갑자기 찬 물이 나오는 불편을 해소했다. 또 물을 데우는 데 중요한 열교환기 동체를 99.9% 순동으로 만들어 동체 부식이나 백화현상이 없어 연료가 절약되며 고장이 적어 반영구적인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실내에 가스가 누출되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정보음과 함께 말로 알려주는 기능을 장착했으며 기름탱크 안에 기름이 하루분 정도 남았을 때 미리 보충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02)607-6252





98년도 가정용 가스 및 기름보일러 시장 전망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약 5만대가 보급됐으며 올해에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불황극복 전략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생산 모델수를 줄이고 저가형 보급 모델에 치중하는 등 철저한 원가 위주의 생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 경쟁 또는 보완관계에 있는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하고 제살각기식의 과다경쟁으로 업계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보일러 시장은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판매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또 안전성과 편리성, 절약형 등을 강조한 신제품 개발 경쟁이 치열해 보일러 시장은 어느 해보다 판매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가정용 보일러 시장은 대도시 인근지역 까지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고 사용상의 편리성, 업체들의 꾸준한 판매경쟁에 힘입어 가스보일러가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는 반면 기름보일러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올해 국내 보일러 시장규모는 연간 약 6천억~7천억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가스보일러는 기존 가스보일러 수요가 교체 물량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총판매량은 지난해보다 5~10% 상향된 75만대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름보일러는 지난해 95만대 정도 생산되어 지난 91년 1백만대를 넘어선 이래 처음으로 1백만대 이하를 나타냈다.

린나이코리아

6년 연속 매출액 1위 고수

린나이(대표 강성모·姜聖模)는 올해 가스보일러 6년 연속 매출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해 보일러부문 소비자 만족 1위와 품질 경쟁력 100대 기업에 선정된 성과를 바탕으로 품질경쟁력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가스보일러 매출 1위를 고수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모두 90만대를 판매하며 5년째 가스보일러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린나이는 최근 들어 기름보일러 업체들이 대거 가스보일러 시장에 진출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자 영업력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유가 상승에 따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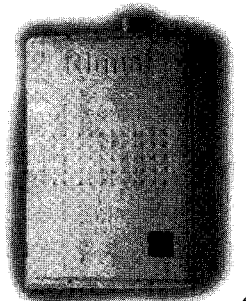
전화로 온도조절·작동상태 확인

린나이코리아의 말하는 보일러는 장시간 집을 비우거나 외출했을 때 보일러 작동 상태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제품으로 텔레컨트롤 기능을 옵션으로 채택했다. 텔레컨트롤이란 전화회선을 이용해 보일러를 외부에서 원격 제어하는 방식을 채용한 것으로 전화를 걸어 보일러를 켜고 끄는 것은 물론 원하는 온도 조절, 작동 이상 유무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수온을 일정하게 조절해 주는 비례 제어방식 맞춤형 온도 유지기능을 채택해 열효율을 높여 가스를 절약했을 뿐 아니라 소음도 크게 줄였다.

아울러 46가지의 안전장치를 채택했으며 잔고장이 없이 집수명 만큼 오래 쓸 수 있도록 내구성을 확보했다.

(02)320-5904



■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선호와 IMF한파로 국내시장 위축

지난해에 기름보일러의 중소기업고유업종 해제에 따라 대기업들이 기름보일러 시장에 진출하면서 치열한 혼전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시장은 여전히 귀뚜라미보일러와 경동보일러가 주도하였다.

여기에 가스보일러의 강자로 평가되는 린나이코리아가 KT마크를 획득한 적층형 열교환기 기름보일러를 시판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반격을 가하고 있다.

기름보일러 업계는 도시가스공급의 확대 및 국민의식변화로 가스보일러 선호도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축소함에 따라 가스보일러 시장으로의 신규 진출과 함께 기존 기름보일러 제품의 해외 수출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경동보일러가 이미 중국 연변과 북경에 단독투자 회사를 설립했고, 귀뚜라미 보일러도 최근 천진에 공장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중소 기름보일러 업체들은 작년 기름보일러 시

장의 침체로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했고, 대우전자, 롯데기공 등 대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침체와 더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체들은 농어촌용, 화훼단지용 및 전원주택용 보일러를 개발해 활로를 개척하였지만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름보일러 시장은 대체 및 개체수요가 점차 가스보일러로 이동하는 등 시장 자체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고, 환율상승에 따른 고유가 시대를 맞아 이미 사양분하로 취급되던 연탄 보일러가 재등장하는 등 시장전망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틈새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농어촌 실정에 맞는 난방용량기준을 초과해 온수 용량을 극대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전략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 97년 대비 판매량 1/2 감소

린나이 - 가스절약형

맞춤온도기능 채택 연료 줄여

효율적인 난방운용과 온수사용에 중점을 둔 절약형 제품으로 사용자 설정온도에 비례해 불꽃크기를 정밀하게 자동 제어하는 이른바 맞춤온도 유지기능(특허기술명:가스비례제어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온도편차 폭 만큼 연료 낭비가 발생하는 일반 저장식 보일러의 단점을 개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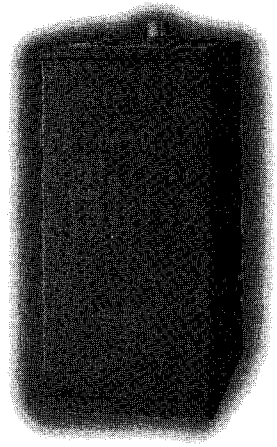
또 온수를 소량만 사용할 때도 탱크 내 물을 다 데워야 하는 기존보일러와 달리 필요한 만큼만 곧바로 연속적으로 데워주는 순간식 보일러로 경제적이다.

특히 LPG 잔량감지 시스템을 채택해 남겨 버리는 가스량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작년 6월 출시된 '스피드' 기름보일러는 적층형 열교환기를 채택해 국산신기술(KT)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온수가열 시간이 단축돼 기다리는 시간 없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가열시간이 단축된 만큼 연료비도 절약할 수 있다.

스피드 기름보일러는 난방수와 온수 열교환 방식에 있어서 가스보일러 기술이 기름보일러에 적용된 점이 혁신적이다.



향후시장 A/S로 승부 걸어

IMF한파에도 불구하고 가스보일러 시장은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은 성장세를 계속 이어나갈 전망이다. 지난해 가스보일러시장은 안전성 등 품질개선, 마케팅 강화, 기름보일러 대체수요 등으로 큰 폭의 신장세를 보였다.

시장규모는 85만여대 생산에 75만여대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의 업계 순위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업체별로는 린나이코리아, 귀뚜라미보일러, 경동보일러 등 판매순위가 상위인 3개 업체들은 지난해 각각 20~30%씩 매출이 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린나이코리아는 지난해 25만대를 판매, 전년(18만5천대)보다 30% 늘어 5년째 업계의 선두자리를 유지했으며, 귀뚜라미 보일러는 19만대를, 경동보일러는 12만대를 판매하여 작년보다 각각 38%와 25%씩 늘어났다.



중위 3개 업체인 롯데기공은 8만5천대를, 대성셀틱은 7만2천대를, 대우전자는 6만8천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배기방식별로는 자연배기식(CF)이 6백대, 강제배기식(FE)이 31만대, 강제급배기식(FF)이 54만대 순이며, 용량별로는 2만kcal/h 이하가 60만여대로 가

귀뚜라미 - 다목적형

쓰레기 등 태워 기름 70% 절약

가스와 기름은 물론 장작 조개탄 일반 쓰레기 등 열량을 낼 수 있는 모든 연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IMF형 다목적 보일러다.

이 제품은 장작과 쓰레기 조개탄을 태우는 보일러 안에 기름·가스전용 연소 보일러가 별도로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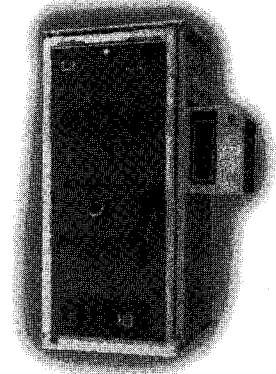
따라서 그을음 등에 의해 보일러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열손실이 없어 기름만 사용할 때 보다 최고 70%까지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또 연료 자동전환장치가 장착돼 땀감이 다 타고나면 기름이나 가스 연소기능으로 자동 전환된다.

특히 내장된 터보소용돌이 버너는 가스와 기름을 자동차 터보엔진 원리와 같이 1차 연소된 폐가스를 다시 연소시키는 것으로 귀뚜라미 보

일러가 자체 개발한 세계적 신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땀감을 한꺼번에 많이 넣어 두면 과열로 화재나 물이 끓어 넘칠 위험성이 있으나 자동 공기조절장치를 부착해 땀감이 서서히 장시간 연소됨으로써 안전하고 연료도 절약된다.

이와함께 갑작스런 고장때도 파이프 배관시설이나 농어촌 양어장, 비닐하우스 동파를 방지할 수 있다. 복합연소 구조를 갖춰 나무 종이상자 폐비닐까지 땀 수 있어 쓰레기 문제까지 해결한 일거양득 다목적 보일러라고 할 수 있다.



장 많이 팔렸으며 다음으로 2만kcal/h 이상이 20만 대, 1만5천kcal/h 이하는 5만대, 1만kcal/h 이하는 9천 대를 차지했다.

■ 건설경기하락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주력

'98년도를 맞이한 가스보일러 업계의 입장은 건설 경기의 침체로 매우 혼란스럽다. 건설경기는 가스보일러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어, IMF로 인해 수반되는 제반 여건이 건설 산업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몇몇 건설업체들은 이미 부도가 난 상태이고, 또한 부도 위기설에 나들고 있다.

올해의 주택건설은 약 52만호 내외로 추정됨에 따라 가스보일러업체들은 새로운 판매전략을 수립

하며 안전성과 편리성 등을 강조한 신제품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98년도의 가스보일러 시장은 어느때보다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미 귀뚜라미보일러는 98년형 중형보일러를, 린나이코리아는 말하는 보일러를, 경동보일러는 태양열보일러를, 동양매직은 '온수천' 기본형 신모델과 대용량(25K, 30K)의 신모델을 출시하였고, 롯데기공도 공해물질을 최소화한 신개념의 가스보일러를 11월경에 출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업체들도 기존 모델에서 기능과 안전이 강화된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가격면에서는 원자재 및 부품대금의 인상에 따라 가스보일러 업체들의 제품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린나이는 신

경동보일러

중국 등에 1,500만弗 수출

경동보일러(대표 김철병·金喆炳)는 활발한 외국시장 개척과 품질경영을 통한 전략적 영업, 고객 위주 신제품 개발과 A/S강화로 내수시장 위축을 타개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외국시장 개척과 관련해 올해 보일러를 1,500만달러어치 수출하고 중국 동남아뿐 아니라 유럽 동구 남미에까지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베이징(北京)에 건설하고 있는 제2공장이 다음달 완공되면 제1공장과 더불어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유가 시대에 적합한 태양열 보일러와 심야 전기보일러도 최근 출시해 소비자 만족을 높이는 한편 동절기 A/S 발생요인을 줄이기 위해 전국 순회 무상점검서비스와 함께 대단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사전점검 서비스 등 고객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밖에서 전화로 예약난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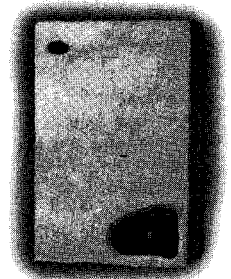
경동의 따르릉보일러는 집 밖에서 전화 한 통화로 보일러를 작동·정지시키며 예약난방이 가능하다. 최첨단 원격조정 시스템을 채택해 전화벨이 울리면 자동으로 실내온도 조절기(룸콘)로 착신돼 보일러가 작동 또는 정지되도록 했으며 보일러 작동과 안전점검을 실내에서 하는 실내온도 조절기능도 덧붙였다.

이 제품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예약난방 기능으로 귀가하기 전 전화를 걸어 보일러를 작동해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보일러를 가동한 채 외출했을 때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연료손실을 막아준다.

일산화탄소를 완전 연소하고 이를 감지하는 경보기도 내장돼 있다.

이 밖에도 취침 중 보일러 온도조절을 원할 경우 룸콘이 설치된 장소까지 가지 않고 전화기로도 보일러를 조작할 수 있어 편리하다.

(0333)52-6564



제품 출시와 함께 보일러 가격을 5%를 인상하였고, 나머지 업체들도 이달부터 5%에서 20~30%까지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불안한 경제국면이 앞을 예측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보일러 업체들은 자구책 마련에 들어가 이미 몇몇 업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인원을 감축하고 대리점을 개편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IMF한파 영향으로 국내 시장이 다소 위축되고 있어 각 업체들은 활발한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환율급등으로 수출여건이 호전되어 수출분야에 사업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네덜란드, 우루과이, 중국 등에 2백여대의 가스보일러를 수출한 롯데기공은 이외에도 남미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칠레 디스코사에 Q30AW 등 2개 모델을 샘플로 수출한 상태이다.

러나이코리아도 지난해 말부터 가스레인지의 중국 수출을 기점으로 올해는 베트남, 남미, 호주, 미국 등 세계 40개국에 출하전제품을 본격적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경동보일러는 주 수출 대상국이었던 네덜란드, 그리스, 터키, 남미에서 모스크바와 시베리아를 포함한 서부러시아와 서부유럽 시장으로 본격 진출하여 총 2천만불을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러시아 시장 진출을 계기로 그동안 주력 수출품이었던 기

롯데기공

수출다변화 내수위축 타개

롯데기공(대표 김우련·金祐鍊)은 올해 가스보일러 시장점유율 2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월에 무결점 가스보일러를 내놓고 제품경쟁력을 강화하며 소비자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힘쓸 방침이다.

또 대리점에 대한 다양한 판촉지원을 통해 영업력을 강화하고 유통조직도 보강할 예정이다.

롯데기공은 지난해 네덜란드, 우루과이, 중국 등에 가스보일러를 수출해 호평을 받았는데 특히 올해는 IMF한파에 따른 내수시장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수출지역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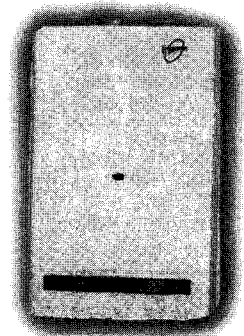
한편 하반기에 시판할 무결점 가스보일러는 습식 주열교환기와 고부하 분젠 버너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례제어방식, 예약난방, 본체 원터치 오토시스템, 강제급배기식(FF), 강제배기식(FE) 방식을 공용할 수 있는 첨단 신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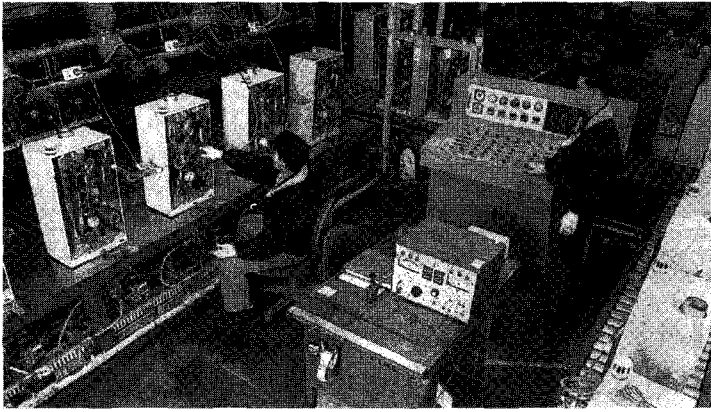
장시간 목욕·많은 물 사용때 유용

롯데기공의 온수증대형 보일러는 어린이와 노인 등 특별히 온수를 많이 써야 하는 가정을 위해 개발됐다. 이 제품은 가스보일러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 온수량 부족을 개선해 쾌적난방은 물론 장시간 목욕이나 대량 온수 사용이 필요할 때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양의 온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스의 열원을 직접 가열방식으로 설계해 열교환율을 높여 단열면적이 동절기 1인당 샤워할 수 있는 온수량(7.5~10l)과 37~42°C의 온수가 나오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간접가열방식 가스보일러에 비해 열효율이 3~5% 높아 가스비용이 월 5,000~7,500원 정도 절감된다.

또 난방 열량보다 온수열량이 한 단계 높고 소량의 물을 사용해도 온수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

(080)023-8285





■ 가스보일러 업체,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경쟁

가스보일러는 서울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체수요와 지방에서 신규수요의 급속한 확대가 시장 전망을 밝히게 하고 있어 각 업체들은 활발한 마케팅을 전개하며, 고객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24시간 접수체제를 유지 등 서비스경쟁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양매직은 전자렌지, 전기밥솥 등에 이어 가스보일러도 중국,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하여 현지 법인을 활용하여 시장조사중이며, 귀뚜라미보일러도 올해는 해외진출업무를 강화하여 중국 러시아 그리스 등지에 수출을 추진중에 있다.

린나이의 '고객감동' 서비스시스템은 전국 온라인 서비스전산망을 통해 소비자의 클레임을 연중무휴로 접수처리하는 365일(3651) 서비스체도로 특히 동절기 24시간 서비스 체제를 실시하여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100% 출장서비스에 토, 일요일(공휴일 포함) 야간 등의 예약서비스 및 PC통신 나우누리(GO Rinnai 12, A/S)와 FAX(323-3651)로도 서비스 신청을 받

삼원기계 - 화훼용 보일러

장작·기름 겸용 - 축사·온실 난방

삼원기계(대표 최진우·崔鎭宇)가 에너지 절약형으로 내놓은 농장 보일러는 장작과 경유 석탄은 물론이고 농업과 임업 부산물까지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연료비 부담이 적은 점이 특징이다.

농촌의 주택 난방에서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 양식장 과수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제품은 한 번 장작을 넣은 뒤 4~7시간 동안 뿜 수 있는 연소실과 함께 연소실 하단부에 불받이철틀(로스틀)을 주물로 특수 제작해 부식과 변형을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했다.

특히 장작·기름 겸용으로 즉시 연료를 교체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 장작 문짝을 닫으면 장작 보일러가 되고 버너 문짝을 닫으면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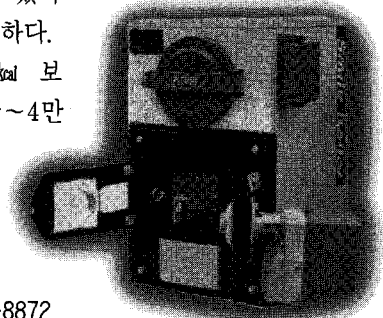
자동 기름 보일러가 돼 자동으로 작동된다.

이와 함께 보일러 내부를 3패스 횡연관식으로 제작해 최고의 열효율을 유지토록 해 장작이나 기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또 연료 교체시 실수로 인한 화상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버너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기차단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다.

아울러 보일러에 앞문이 부착돼 연관에 엉겨 붙은 타르나 그을음 등을 태우는 교체 알코올을 넣을 수 있어 청소가 용이하다.

2만~3만㎳ 보급형과 2만~4만㎳ 고급형 두 종류가 있다.



(02)3661-8872

고 있으며 서비스 이후 A/S의 품질, 친절성, 만족성 등을 조사하는 해피콜제도를 두어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롯데기공의 2-2-2서비스(소비자로부터 전화가 올 때 벨이 2번 울리기 전에 받기, 2시간 이내에 처리하기, 2일 이내에 해피콜 실시하기)는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95년도에 A/S인증마크(사후봉사 우수기업 인증마크)를 획득한 동양매직은 통합서비스시스템(C.C.C)과 전국적인 서비스망, 24시간 서비스체제를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고객만족우선의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객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든 고객을 전산으로 등록, 관리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체계적인 사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귀뚜라미보일러는 전국적인 A/S망과 충분한 A/S인원 확보로 신속처리와 해피콜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전국 읍단위 이상에 A/S센터를 개설하고 1,500명의 A/S요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심지 교통체증을 고려, 450대의 오토바이를 운영하고 있다.

사고예방과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비수기에 는 전국의 요원들이 안전순회 점검도 실시하여 A/S 우수업체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연료비 · 내구성 따져본 후 구입

■ 소비자 가이드

보일러는 한번 구입하면 5~7년은 사용하므로 요모조모 따져보고 구입해야 한다.

특히 IMF시대를 맞아 연료비나 내구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발열용량은 대체로 난방면적×500kcal면 무난하고 온수 사용에도 적합하다. 따라서 30평형 주택은 1만5,000kcal 용량의 보일러면 적당하고 이 용량은 기름 또는 가스보일러에 모두 적용된다.

가스보일러 내관 공사비가 드는 대신 연료값이 싸지만 기름보일러는 구입가는 싸지만 연료가 많이 소요돼 장기적으로는 효율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은 가스보

경동 - 전기보일러

심야시간대 전기사용 경제적

일반 전기료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한 심야 시간대(22:00~08:00)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매우 경제적이다.

전력 예비율은 낮 시간에는 5~6%에 불과하나 야간 예비율은 60% 이상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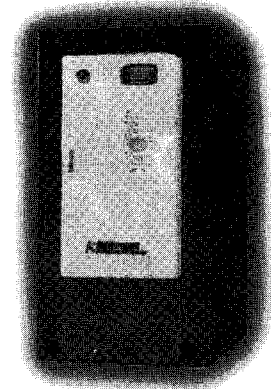
이러한 전력공급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자 만든 것이 심야 전력기기이다. 전기보일러는 우선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연료비가 저렴한 뿐 아니라 누진 요금제가 아닌 단일 요금체계를 적용해 요금이 싼 것이 장점이다.

또 연기나 재가 발생하지 않아 집안 공기가 항상 깨끗하고 냄새나 소음이 없어 쾌적한 환

경을 조성한다.

유해가스 중독이나 화재, 폭발과 불완전 연소 등 염려가 없고 온도 과열 방지, 누전차단기, 저수위 차단장치를 장착해 안전하다. 이 밖에도 연료의 저장 충전 누설에 의한 불안 요소가 없으며 전력제어에 의한 완전자동 운전으로 외출시 별도 조작이 필요없이 편리하다.

기름값과 가스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IMF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일러를, 그외 지역에서는 기름보일러는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일러실이 있으면 자연배기식이나 강제배기식을 설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급배기식 보일러를 구입해야 한다.

강제급배기식은 팬을 돌려 연소용 공기를 공급하고 강제로 배기가스를 배출하므로 설치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은 장점이 있다.

구입·설치·시공 등의 요령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 어떤 보일러를 선택해야 오래 쓸 수 있나?

'김', '열', 'KS' 등이 표시된 공인기관 규격 제품을 생산하는 전문메이커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이들 제품은 품질을 믿을 수 있고 안전성과 열효율도 높다.

또 연소안전장치, 과열방지, 동파방지 등 각종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실내조절기가 장착돼 있는지 살펴보고 구입해야 한다.

● 시공자는 어떻게 선정해야 하나?

시공자는 행정관청에 시공업 등록을 해야만 보일러 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설치를 의뢰하기 전에 시공자가 유효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일러 시공업체가 많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있어 전문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문의: 한국온돌시공협회 (02) 3401-1497

● 사용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보일러는 민감한 제품이므로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연료는 반드시 지정된 연료를 사용해야 하며 연료공급 배관은 하자가 없는지 점검하고 배관 내 공기를 제거해야 한다.

● 가스보일러 사용시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가스보일러는 사용이 간편하고 깨끗하게 연소되는 장점이지만 재가동을 대비해 안전점검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열교환기는 본체에서 떼어내 녹이나 불순물을 털어내고 물을 분사해 핀(주름부위) 내부를 씻어낸다. 버너에 그을음이 있으면 부드러운 철솔로 털어내고 조립 후에는 반드시 가스사용 점검요령에 따라 냄새나 비눗물 검사로 가스가 새는지를 확인한다.

● 보일러 청소는 어떻게 하나?

겨우내 가동했던 보일러는 대부분 그대로 방치하거나 간단한 청소만으로 관리를 끝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하면 보일러 수명이 50%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연료도 10% 이상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우선 장기간 방치하는 것보다 가끔 가동하는 것이 좋고 오랫동안 가동하지 않았으면 전원 콘센트

동양매직 - 온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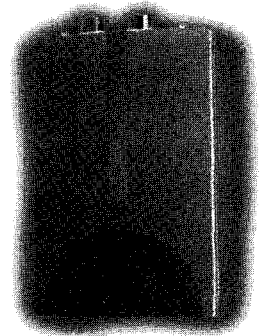
가스보일러 온수천

가스 오븐레인지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해 가스보일러 시장에 참여한 동양매직의 온수천은 3년여의 개발기간과 10여명의 연구인력, 20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한 온수증대형 제품이다.

전모델 20,000kcal/h의 순동대용량 열교환기와 병렬판형 온수열교환기를 개발, 적용하여 난방 28평형, 32평형 모델에서도 40평 제품의 온수용

량이 나와 고객의 욕구가 점차 풍부한 온수를 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잠재욕구에 대한 컨셉이 강화되었다.

N/P ASS' Y의 동파방지기술과 모듈화 기술은 96년 KT마크를 획득하였고, 미국, 일본 등에 특허가 출원중이다.



를 뽑고 기름보충밸브나 가스중간밸브를 잠궈야 한다.

● 관리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보일러 손질에서 중요한 것은 연료가 타는 화실 벽면의 그을음을 없애는 일이다.

기름보일러는 우선 화실 벽과 연관을 닦아내야 하는데 전원과 기름공급을 차단해야 한다. 다음에 연통과 덮개를 분리한 다음 소음기와 열차단판을 들어낸 뒤 철술 등을 이용, 아래로 그을음을 쓸어 내면 된다.



업체별 A/S 전략

귀뚜라미보일러는 전국 읍단위 이상(281개소)에 애프터서비스(A/S)센터를 개설하고 3,000여명의 A/S요원을 확보했으며 교통난을 감안해 750여대의 오토바이를 가동하고 있다. 또 사고 예방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전국 안전순회점검과 각 공장에 긴급 A/S팀을 상주시키고 섬과 농어촌 지역에 순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유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보일러의 응급조치요령과 간단한 기술교육을 실시해 기름주유시 보일러를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귀뚜라미보일러는 이 달부터 제품 정보는 물론 간단한 응급조치 요령과 각 지역의 서비스센터 정

보를 인터넷 웹사이트(www. krb. co. 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본사 직영의 전국 40개 선대에 350여명의 서비스요원을 두고 있는 린나이코리아는 '고객감동' 서비스를 모토로 전국 온라인 서비스망을 통해 소비자의 불만을 연중무휴로 접수·처리하는 365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PC통신 나우누리(GO Rinnai에서 12A/S)와 팩스(02-323-3651)로도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동절기에는 24시간 출동체제를 가동하고 △사전점검 서비스 △100% 출장 서비스 △예약서비스 △해피콜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동보일러는 봉사 대리점 A/S지정점 3각 체제에서 서비스의 지역범위를 세분한 지역별 분담제를 통해 A/S요청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A/S지정점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경동보일러는 내달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대리점이 전화나 방문을 하지 않고도 A/S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기공은 전국을 140개 서비스 지정점별로 세분한 지역별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역별 고객 관리는 물론 고장 발생시 24시간 안에 신속하게 방문, 처리를 할 수 있다.

또 고객만족 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전산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수전자

탱크보일러 K-시리즈 5종

K-시리즈는 난방용량(13,000kcal/h)에 비해 온수용량을 한등급씩 높은 용량(16,000kcal/h)을 채용하여 온수 부족문제를 해결하였고, 축열기능이 있는 물탱크를 설치하여 온수사용 중단시에도 열량이 보존되어 즉시 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펌프와 삼방변, 연결파이프 등 다부품으

로 인한 불량 및 누수 등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한 2-WAY 펌프를 개발, 파이프수를 12개에서 4개로 대폭 줄임으로써 누수 및 부품 불량을 최소화시켜 품질을 한단계 향상시켰다.

